

4월,

# 콘크리트 링과의 전쟁

- 스리랑카 팀 5기 -

DON'T THROW TRASH AWAY  
කැමිසළ සැමතැන  
නොදමන්න



특별 부록

01. 현장 분석

02. 그들의 삶 이야기

03. 잊혀진 도시, 잊지 못할 기억





# 스리랑카에서 4월을 외치다.

- 01 4월 달력
- 02 콘크리트 링 Project
- 03 한국어 교실
- 04 태권도 수업
- 05 LOGOS HOPE
- 06 아우루두
- 07 헌혈 캠페인
- 08 생태 공원
- 09 데두누의 빵 특집
- 10 5기, 첫 여행
- + 개인 에세이 +

# A P R I L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 • Children club • Korean class	2 Zoological garden	3
4 • 강가의 아이들	5 Recycle bin 완성	6 • Herbal drink • Youth club	7 <i>With Logos hope</i>	8 • Children club • Korean class	9 아우루루	10 Concrete ring 작업
11 • 강가의 아이들 • Committee meeting	12	13	14	15 Holiday ♡	16 • 태권도 class	17
18 Committee meeting	19	20 • Youth club • Herbal drink	21	22 • Good friday	23 • Blood donation campaign	24
25 Committee meeting	26 • 리니샤 집에 초대	27	28	29	30 • 태권도 class • 전통춤 배우기	



함께해요 ~ 스리랑카 ♡

## 콘크리트 링

이번에 소개 할 프로그램은 콘크리트 링 입니다! 콘크리트 링 프로그램은 YMCA에서 진행하는 환경개선 사업으로써 저희 라온아띠 팀이 맡은 장기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4월 초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26개 중 14개가 완료 된 상태이고, 현재 나머지 12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링을 만들게 된 계기는 스리랑카 4기 팀이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나무 틀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튼튼한 콘크리트를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콘크리트 링의 사용 목적은 가로수를 보호하고 환경개선 의식을 대중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대중에게 환경개선 의식을 전파하고자 홀수와 짝수 별로 콘크리트 링에 짧은 문구를 적었습니다. 홀수는 Don't throw trash away이고 짝수는 Keep the city clean입니다. 또한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현지어인 싱할라어도 함께 적었습니다.

잘 될 것이라는 믿음과 한 두 명씩이라도 좋으니 사람들의 머리 속에 환경개선 의식이 차차 자리잡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 들여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콘크리트 링을 어떻게 만들었고, 콘크리트 링을 만들면서 있었던 일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링은 높이 약: 0.7m, 단면적 약: 0.38m<sup>2</sup>인 원형의 프레임 입니다. 용역업체를 통해 주문제작을 했고요. 디자인만 저희가 했습니다. 반을 나누어서 한 쪽 면에는 영문과 싱할라 짧은 문구를 쓰고 반대쪽 면에 YMCA로고와 KB로고 그리고 라온아띠<sup>5th</sup> 를 새겨 넣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커다란 Y입니다. YMCA 보드멤버가 이 부분을 강조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색감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제일 먼저 하얀색 필러를 칠하고 그 위에 에메랄드 빛 배경을 덧칠합니다.

연한 에메랄드 색상 위에 파란색 짧은 문구를 칠하고 검은색과 빨간색으로 YMCA로고를 칠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란색으로 KB로고를 칠하고 검은색으로 라온아띠<sup>5th</sup>를 칠함으로써 디자인은 완성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어렵고 힘든 작업인 콘크리트 링 옮겨 심기가 남아 있습니다π π 저희는 지게 차 같은 특수 장비를 쓰지 않고 경운기로 콘크리트 링을 가로수가 있는 곳까지 옮겨서 심습니다.

힘이 센 어른 10여 명이 모여서 굴리고 세우고 돌려서 링을 심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의 콘크리트 링 프로그램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링 작업을 하면서 힘들었거나 어려웠던 점은 무더운 날씨, 그리고 페인트와 신나 냄새 때문에 몸 고생을 좀 한 것과 글자 색칠을 위해 블록을 만드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밤샘 작업을 하면서 느끼거나 배운 것도 있습니다.

팀 프로젝트는 함께 할 때 의미를 가지며, 쉴 때 다같이 쉬고 일 할 때 다같이 일 해야 팀워크가 좋아진 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외 되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는 팀원이 생기게 되죠.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뜨거운 태양 아래 12시간 일을 해도 주체하기 힘든 체력과 식스팩의 소유자가 스리랑카에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웃자고 한 소리지만 사실입니다.

콘크리트 링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어 교실

모라투와YMCA의 한국어 교실은 개인적으로 출국 전에 가장 열심히 준비했던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서 1기 때부터 꾸준히 이어져 내려온 장기 프로젝트 입니다.

현재 스리랑카에는 드라마 '폴하우스'를 방영 중이며,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널리 퍼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가보고 싶어하거나,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합니다.

이 곳에서 저희는 연령 및 한국 인지도에 따라서 반을 2개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임의로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부릅니다. 초급반 인원은 7명, 중급반 인원은 6명으로 소수정예반을 육성중입니다. 한국어 클래스에 대한 호응도도 높고,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금요일 밤 시간대에 클래스가 편성되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적은 편입니다.(치안이 좋지 않은 스리랑카 사정상, 어린 학생등이나 여성은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으면 늦은 밤에는 돌아다닐 없어요. 직장인도 일 끝나고 YMCA로 오기에는 애매한 시간대이기도 합니다)

현재 초급반에는 6살 꼬마부터 40살 넘는 아줌마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기초 한국어 생활 회화 및 관련 단어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을 접했기 때문에 한국 문화 등에 대해 궁금증이 많고, 한국어를 배워서 드라마를 좀 더 깊게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12살 칸차너는 보호자인 엄마, 동생 2명과 함께 가족이 사이좋게 한국어를 공부하곤 합니다. 6살 꼬마 기닛은 형인 칸차너와 널찍이 떨어져 앉아 혼자 공부하면서도 기똥차게 한국어를 따라해서 사유리(지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지요.

중급반 학생들은 활기 넘치는 20대가 대부분이며 상황 별 대화문을 통해 초급반보다 심화된 표현을 배우고 있습니다. 가끔은 한국에 여행 또는 방문했을 때의 상황을 가정해서 대화를 진행해보기도 합니다. 배우고 싶은 열망과 강렬한 의지가 합쳐져서 한 문장 한 문장 배울 때마다 속사포 같은 질문이 쏟아지기 때문에 차마르(경극)와 라슈미(소라)가 골머리를 앓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기수에게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의 연계 수업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덕분에 전 기수들이 놓고 간 좋은 책들이 많은데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어를 가르쳐 줄 때 선생님과 학생 사이가 아니라 친구 사이에서 한국어를 알린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이와 문화차이를 떠나서, 스리랑카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서로 닮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서투른 싱할라어를 하고, 그들은 서투른 한국어를 하면서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공부합니다.

이곳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우리나라 문화 전달의 매개체가 되었으며, 한국에 일하러 갔다 온 사람들도 꽤 많아서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부산/김포/인천 등에서 일했었어요!"라고 인사하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습니다. 가끔은 이들의 환한 미소에,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들의 모습이 겹치면서 괜스리 미안해지곤 합니다. 어쩌면 먼 이국 땅에서 일하면서 열악한 현실에 상처를 받았을 것만 같은데 다들 "한국이 좋아요!"라면서 대답해주기에, 그들이 있었던 동네가 그리고 그 시절이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PS. 스리랑카의 싱할라어에는 수많은 문자라 발음들이 있어서 한국어 발음을 표기할 경우 정확한 발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 한국을 전혀 모르는 오피스 멤버 Mr.Sampath에게 음차표기한 싱할라 글자를 보여주었을 때, 순진무구한 얼굴로 '케짜!' 이라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슨 바로 싱할라의 힘! >\_<

PS2. 스리랑카를 준비하는 라온아피 6기들에게

외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날이면 날마다 한국어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경건해지고 있어요. 게다가 이 곳에는 한국에 가기 위한 전문적인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온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 및 한국어 교수법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고 오셨으면 합니다. ^^\*

## 라운아띠의 4월-태권도 수업

태권도 수업은 라운아띠 5기 스리랑카 팀의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로, 총 3개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에 있는 YMCA Children's Club을 위한 태권도 수업, 매주 목요일 저녁에 있는 YMCA Youth Club을 위한 태권도 수업, 그리고 매주 수요일 오후에 있는 Angulana지역 사람들을 위한 태권도 수업입니다. 이 중 앞의 두 수업은 YMCA 안에서 진행을 하고, Angulana 태권도 수업은 말 그대로 Moratuwa YMCA에서 버스로 30분가량 걸리는 Angulana지역으로 가서 진행을 합니다. 우리 팀 3월 보고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 참고할 분들은 참고하세요. ^^

이번 4월에는 싱할라 아우루두(스리랑카 설날), 국내여행 등의 일정으로 인해 YMCA에서 하는 두 개의 수업들이 한번 내지 두번 가량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Angulana에서 하는 태권도 수업은 수업을 하는 장소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YMCA 보드멤버들의 의견이 있어, 현재 적절한 장소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4월에는 Angulana 태권도 수업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아쉬운 부분이죠. TT.... 조만간 장소 선정이 될 것 같다고 하니, 그들과 다시 함께 할 시간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태권도 수업의 진도를 잠깐 짚어볼까요?

매주 토요일 오전에 있는 YMCA Children's Club을 위한 태권도 수업에서는, 저번 3월 보고서에서도 언급했듯이 태권도의 기초동작(방어, 공격, 발차기)를 함께 진행한 후, 아이들에 수준에 따라 품새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태권도를 언제 시작했느냐가 품새에 있어서 진도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현재 가장 효율적인 수업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들에 따라 태극 1장부터 5장까지 수업을 진행중이며, 5월 첫째 주 토요일 수업에서 이것을 심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심사를 하는 날에는 심사를 한 시간 가량 진행한 후, 나머지 한 시간 가량 몸과 마음을 즐겁게 단련할 수 있는 recreation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 있는 YMCA Youth Club을 위한 태권도 수업은 저번 보고서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 라운아띠 5기 스리랑카 팀이 처음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 사람도 적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적은 편이지만, 꾸준히 잘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태권도의 의미와 기초동작, 그리고 품새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보여준 정도입니다. 5월달부터는 태극 1장부터 천천히 품새 수업을 같이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번 4월에는 현지 코디네이터를 포함한 우리 라운아띠들의, 태권도 수업에 대한 특별한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바로 '태권도 수업의 문서화와 증명서' 입니다. 이것은 '다른 무술은 배우는 사람



들이 일정 수준에 도달된 후 배출되거나 다음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데, 왜 태권도는 수업이 처음 시작된 지 2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이 같은 아이들이 같은 것을 연습하고 있느냐' 라는 일부의 피드백에 따른 우리 라온아띠의 생각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부의 견해는 태권도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모르는 배경에서 나온 것이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태권도는 기술의 학습이 아닌, 심신의 완전한 수양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 무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줄이고 YMCA, 더 나아가 Moratuwa와 Sri Lanka 사람들이 태권도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태권도의 일반적 정보를 포함한 우리들의 태권도 수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서화 하고, 그것을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증명서에 대한 의견은 전 기수들, 그리고 우리 라온아띠 5기에게도 몇 번씩 언급되었던 부분입니다. 태권도에는 급과 단이라는 형식을 통해 수준을 구분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태권도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수준을 확인하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데 있어 증명서는 필수적인 요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향후 태권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경우 배우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배울 수 있는 중간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라온아띠 5기는 증명서의 구체적 형식, 즉 증명서에 들어갈 내용과 배경, 모양 등을 회의 중에 있습니다. 또, 이 증명서는 수업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승급심사를 거쳐 일정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리고 한가지 더 덧붙이자면, 우리들의 전 기수인 라온아띠 4기 스리랑카 팀이 꼭 전해달라며 신신당부하던 Ayesh, Pragatti, Nemasha의 태권도 도복과 띠를 잘 전달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안 그래도 큰 눈을 더 크게 뜨고 방방 뛰며 좋아하더군요.ㅋㅋㅋ 4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라온아띠 5기의 4월, 태권도 수업편은 여기까지입니다. 5월에 또 만날 수....있겠죠?♡ㅋㅋ





## LOGOS HOPE, 그들의 발자취

### 라온아띠, LOGOS HOPE과 프로그램을?

4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LOGOS HOPE 사람들과 활동을 같이 했다. 7명의 LOGOS HOPE 사람들이 왔는데 연령과 국적은 다 달랐다. 아일랜드 사람인 데스와 린 부부, 잠비아 사람인 알프레도와 헬렌 부부, 자메이카에서 온 캐리안, 러시아에서 온 나타샤, 독일에서 온 아니까지. 모두 국적과 연령은 달랐지만 무슨 활동을 하든 생각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라온아띠+LOGOS HOPE)는 콘크리트 링, 허벌 드링크, 디고롤라 가든, Youth Club 활동을 같이 했다. 먼저 콘크리트 링 활동에 대해서 말하자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활동이었다. 사실, YMCA 보드 멤버 측에서 LOGOS HOPE 사람들의 연령과 목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들을 라온아띠 활동에 참여시킨 것은 전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이었다고 사과했다. YMCA 코디들과 라온아띠 팀 또한 사전에 라온아띠 활동에 대한 소개와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다.

콘크리트 링 활동이 한 낮에는 직사광선을 받으며 페인팅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체력이나 퇴약병에 약한 사람들은 금방 지쳐버린다. 그래서 LOGOS HOPE 사람들 중 데스와 린 부부처럼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체력이 약해서 장시간 활동하지 못했고 나타샤와 아니, 캐리안, 헬렌 역시 무더운 날씨 때문에 금방 지치곤 했다. 하지만 힘든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열심히 활동 하려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특히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좋은 방법이 생기면 의견을 주고 받으며 합의점을 찾는 것이 배울 만 했다. 그들의 주된 목적은 선교와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하는 것인데, 라온아띠 프로그램인 콘크리트 링은 그들에게 특별하기는 했지만 조금 힘들었던 활동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같이 한 활동이 허벌 드링크 나누어주기와 디고롤라 가든, Youth Club 활동이다.

허벌 드링크 활동은 사실상 라온아띠 팀이 거의 다 하고 LOGOS HOPE 사람들은 보조가 되어 한번 경험 해보는 정도로만 활동을 했다. 예를 들어 "콜라겐너 본느~! 코푸 게헤니 얀네 에빠"(허벌 드링크 마시세요~, 컵은 가져가지 말아주세요) 외치기를 한번 하고 다음에는 드링크 퍼주기도 해보고 이어서 컵 닦기를 하는 것이다.

디고롤라 가든과 Youth Club 활동은 LOGOS HOPE 사람들이 메인이 되어 프로그램을 이끌고 우리가 보조가 되어 활동했다. 보조로 활동을 하면서 그들을 보고 느낀 점이 있다. 특히, 진행 방식에 놀랐는데 그들은 한 마디를 하더라도 밝게 웃으며 큰 소리로 자신감 있게 표현을 했다. 그리고 본인들이 준비한 것들을 사람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시각화 하여 설명했다. 예를 들어 그림이나 간단한 드라마 형식 말이다.

아쉬운 점도 있는데 그것은 리더인 데스의 지휘 하에 멤버들이 쌍방향 소통이 아닌 일방향 소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낀 것이다. 데스가 무언가를 전달 하면 다른 의견 없이 무조건적으로 듣고 따르는 것 말이다. 이렇게 LOGOS HOPE 사람들과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우리는 보고 배운 것이 많다. 하지만 반대로 LOGOS HOPE 사람들 또한 우리를 보고 배운 점이 많다고 했다.

마지막 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편지를 건네며 서운한 감정을 비추었을 때 LOGOS HOPE 사람들은 우리와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에게도 아주 의미 있었던 활동으로 기억될 것이다.

## 그들과 함께한 생활

그들이 처음 오자마자, 그들과 우리는 거실에 모여 개인적으로, 그리고 서로의 팀에 대해 자신들을 소개하고, 공동의 규칙을 정했습니다. 화장실을 쓰는 문제와 주방을 쓰는 문제 등 대부분이 공동의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평하게 나누어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공동의 규칙은 그들이 있었던 2주간 정말 잘 지켜진 듯 합니다. 우리 팀원들 또한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라온아띠는 그들과 함께 살았던 시간을 큰 불편함 없이 만족스럽게 보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우리 라온아띠 팀과 Logos Hope 팀이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통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의 부족, 그리고 우리와 그들의 다른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 우리가 바라본 LOGOS HOPE

약 10일 정도 같이 활동하고 생활을 한 LOGOS HOPE 팀. 저희에게 정말 많은 것을 남기고 갔습니다. 팀 내에서 LOGOS HOPE 팀에 대한 생각도 많고 여러 의견도 정말 많았는데요. 저희가 바라본 LOGOS HOPE은 이렇습니다. 개봉 박두!ㅋㅋㅋ♥

### 1)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 개념의 자원 봉사

LOGOS HOPE은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는 선교 중심의 자원봉사인데 최소 기간이 3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자원 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긴 장기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은 가족과 오랜 시간을 떨어져 지내야 하기에 가정 불화의 불씨가 생길 수도 있을텐데요, 저희가 LOGOS HOPE을 방문했을 때 받은 느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배 안에 자원 봉사자들의 자녀를 위한 학교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었구요. 점심 시간이면 온 가족이 함께 옹기 종기 모여 식사를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령이 다른 많은 사람이 모여 LOGOS HOPE에서는 임의로 "Family"라는 것을 결정하여 서로 엄마, 아빠, 딸, 아들 같은 호칭도 정하고 서로 친목의 시간도 다지면서 자원봉사자들끼리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 LOGOS HOPE에서 온 가족이 참여 할 수 있는, 그리고 배 내에서도 가족 같은 분위기를 중요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 하였기에 가능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

### 2) 특권 있는 자들을 위한 자원 봉사?

LOGOS HOPE은 자원 봉사자들도 한 달에 100만원 가량의 돈을 내고 참가를 하는 활동입니다. 대부분의 자원 봉사자들이 본인들이 다니고 있던 교회에서 Fund를 받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를 지원할 사람을 찾아 활동비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긴 합니다만 이렇게 돈을 내고 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건이 맞고 이런 봉사를 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만이 활동할 수 있는 제한적 봉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3) 현지 사람들을 위해 아직은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한 봉사

LOGOS HOPE에서 5000원 정도의 책을 파는데요, 선내에서 파는 책을 구매자들을 위하여 싸게 판다고 하긴 하는데, LOGOS HOPE이 돌아다니는 여러 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이 싼 가격은 아니었습니다. 또 기독교 중심의 자원 봉사라서 그런지 종교 위주의 책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LOGOS HOPE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책을 파는 이유는, 책을 읽고 싶어도 책을 못 읽거나 책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도 책을 살 돈이 없어 공부를 못 하는 사람들을 위해 책을 싸게 대량 구매하거나 후원 받아서 책을 파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책의 종류를 보면 보통 휴식, 요리, 요가, 다이어트 등 여가 활동을 위한 책과 기독교 서적이 모든 책의 90%를 차지 하는 것 같아, 책의 선정이 LOGOS HOPE의 본래 목적과는 조금 어긋난 것 같았습니다. 또한 LOGOS HOPE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 한하여 티켓 값을 받고 있는데, 이 것조차 LOGOS HOPE을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렇다 쳐도, 현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TICKET도 결코 싼 값이 아니라 LOGOS HOPE에 와보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저희 모라투와 YMCA의 Children Club 아이들도 저희에게 LOGOS HOPE에 다녀왔는지 그 곳은 어떤 곳인지 등 이것저것 호기심을 갖고 가고 싶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저희에게 참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면, 각 나라로 파견되었을 때 팀을 나누어 지역 곳곳으로 들어가 무상으로 책을 나누어 준다든지 책을 정말 싼 가격에 파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씩 그 어느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화려한 배에 들어가는 것조차 불가능하고 불편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저희 팀은 생각이 참 많아졌습니다.

LOGOS HOPE을 통해서 참 배운 것이 많습니다. 그들과 좋은 추억도 만들었고 팀 내에서 생각할 거리도 많았고 그들과 헤어질 때도 서로 편지와 선물 교환을 통해 참 훈훈했습니다. ㅋㅋㅋ♥ 이 자리를 통해 고백합니다. Logos hope! We miss you ☺



# 우리들의 행복했던 시간, 아우루두

안녕하세요! :) 저희 랑카팀은 이번 보고서에도 재미있고 가슴 뛰는 소식들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푸항항. 저희는 4월달에 스리랑카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아우루두(Avurudu)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아우루두에 대해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우루두는 Sinhala Hindu Festival로서 엄연히 따지면 불교의 휴일인데요, 소승 불교 달력으로 따지는 새해를 아우루두라고 합니다. 아우루두가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으로 보자면 한국의 구정이나 설날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날은 우리가 한국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이 곳 사람들도 “수버 알룻 아우루닥 웨와(Happy New Year),”라고 서로 외치고 다닙니다. 아우루두는 불교의 휴일이긴 하지만 국가 차원의 휴일로서 종교에 상관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날인 것 같아요 :)

모라투와 YMCA에서는 아우루두를 맞아 아우루두를 위한 행사를 준비했고, 저희도 여러 가지 게임에 참여도 하고 아이들의 참여를 돕는 등 YMCA와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하루를 같이 하였습니다 ☺ 게임에는 베개 싸움(pillow fight), 눈 가리고 박치기, 코끼리 눈에 점 찍기, 콜라 빨리 먹기, 밀가루 묻힌 사탕 먹기, 그리고 마라톤까지 종류가 굉장히 다양했는데, 그 종류가 한국의 명절 게임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또한 이런 명절을 위해서 온 가족이 한 공간에 모여 같은 시간을 함께 즐기는 것을 보고 초등학교 시절 운동회의 모습을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

한가지 저희 팀이 놀랐던 점은 이렇게 지역에서 하는 행사에 주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자발적이고 적극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지역 단체에서 여는 행사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갖기란 참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이 곳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행사의 중심이 되어 하나의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저희가 아우루두 할 시기에 스리랑카에 와서 참 행운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나중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





## Blood donation campaign



4월 23일 저희 라온아띠 스리랑카 팀은 blood donation campaign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활동은 원래 모라투와 YMCA에 속해 있는 youth club이 기획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저희는 youth club을 도와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Campaign을 위하여 저희는 포스터와 전단지를 만들었고, 번화가나 역 주변에 포스터를 붙이거나, 팸플릿을 나눠주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 활동 당일 날은 캠페인을 위한 준비와 헌혈을 하신 분들을 위한 다과준비와 안내를 맡았습니다. 이곳 스리랑카에서도 한국과 비슷하게 헌혈 후 음식을 제공합니다. 음식에는 바나나와 케익, fish bun(생선으로 만든 속이 들어간 빵)과 함께 밀크티(시원한 끼리티)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아침 8시30분에 시작하여 4시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기본 장소 준비와 음식을 준비해 놓으니 헌혈을 담당하시는 의사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헌혈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가져 오셨습니다. 비어있던 공간에는 순식간에 검사대, 대기공간 그리고 4개의 침대 등이 마련 되었습니다.



헌혈을 하기 위해 기본 사항이 적힌 목록에 체크를 합니다. 다음 몸무게와 혈압을 재고 의사선생님께 상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헌혈이 가능한 사람은 옆에 준비된 침대에서 간호사 선생님의 안내를 받아 헌혈을 하게 됩니다. 스리랑카의 헌혈은 한국과 다르게 바늘을 꽂은 다음부터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 헌혈을 하는 동안 내내 간호사 선생님이 그 자리를 지킵니다.

이 날 비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헌혈을 하러 YMCA에 온 모습에 우리는 많이 놀랐습니다. 헌혈하러 오기까지 귀찮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모습이 많이 좋아 보였습니다. 이렇게 YMCA와 같은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헌혈 캠페인을 하는 취지는 많이 좋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스리랑카는 기계가 아닌 인력을 필요로 하는 등, 헌혈을 위한 여러가지 여건이 좋지만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스리랑카에 대해 보고, 들었을 때 한국 보다 약 30~40 년 정도 기술 분야에서 뒤쳐져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 헌혈을 위한 여건이 우리나라와 똑같은 것을 기대하기 보다, 우리가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도 스스로 발전할 수 있게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날 저희가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아 많이 죄송했습니다.





# Zoological garden

4월 2일 저희 팀은 스리랑카에 있는 동물원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와우~ 이 곳 zoological garden은 엄청~ 엄청~ 넓습니다. 총 60개의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아쿠아리움, 각종 새들이 있는 새장, 우리가 어렸을 때 보았던 동물들과 처음 본 동물 등 다양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Zoological garden의 가장 인상깊게 보았던 점은 장소를 꾸밀 때, 자연을 그대로 이용한다는 것 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동물원과 다르게 정글이나 숲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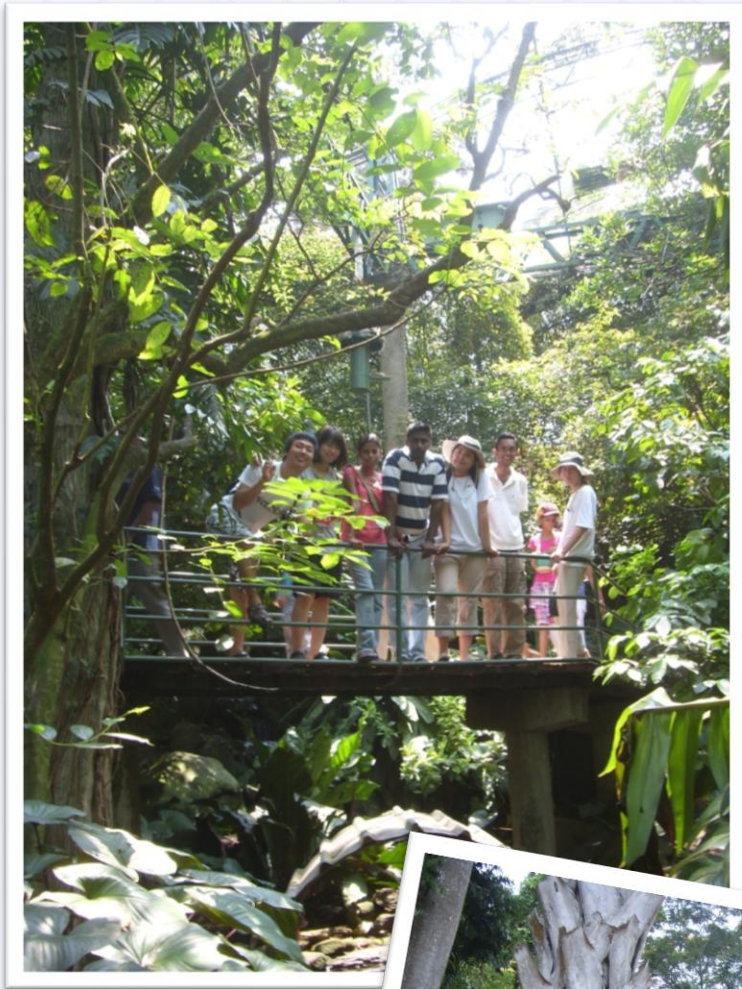


또 새가 있는 코너를 가보며, 새를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풀어 놓았기 때문에 안전범위에서 최대한 가까이에서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점들을 보아 이곳 동물원에서 "자유로운 가둠"을 많이 느끼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우리 팀은 한편 동물원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 우리나라의 동물원은 인간이 주위에 사는 동물을 보기 위하여 공간을 꾸며 놓고 동물을 넣었기 때문에 "가둠" 느낌을 종종 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스리랑카는 동물을 위한 공원을 만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동물이 살려면 그에 맞는 자연을 가져와야 한다는 점, 동물을 먼저 생각하는 점에서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동물이 먼저가 아닌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동물원은 좋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동물원이 생기다면, 동물을 위한 동물원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팀원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모든 부분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자, 곰, 하마 우리를 보면 너무 좁아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사자의 경우 뛰고 싶어도 공간이 너무 작아 좁은 우리를 뱅뱅 도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고, 동물들이 한 마리씩 있는 모습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하마의 경우 환경을 조성하기 보다 네모나 물통에 넣어 둔 것 같아 햇볕을 피하거나 숨을 공간이 없어 보였습니다. 스리랑카의 동물원은 동물이 살기에 환경은 좋은 데 그것을 왜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지 안타까웠습니다. 아마 인력이나 예산 부족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인간의 관점이 아닌 동물을 위한 환경과 관리, 그리고 함께 공간을 나눈다는 생각 입니다.

스리랑카의 자연을 이용한 환경 구성과 우리나라의 동물을 키우고 관리하는 방법을 절충시킨다면 정말 멋지고 이상적이 동물원이 될 것 같습니다.





# 스리랑카의 빵, 빵, 빵!

베이커리 문화가 발달한 스리랑카-  
길거리를 걷다보면 빵집 옆에 빵집, 건너편에 빵집, 신나게 달리는 뚝뚝 안에도 빵이 한 가득~!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맛은 최고예요!  
스리랑카에 오신다면 길 가의 빵집에서 빵과 밀크티를 드셔보세요, 그 곳이 바로 천국!



## 짜빵

사람얼굴만한 반달 모양에 겉에는 달콤한 설탕이,  
안에는 분홍색 딸기잼이 한가득! (한화 200원)



## 플레인 번(띠 번)

한국의 로띠보이에서 볼 수 있는 번과 똑같은 번.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지만 우리 팀원들을 한번에 사로잡은 마법의 빵!  
(한화 180~230원)



## 피쉬롤

피쉬번과 더불어 스리랑카 간식 대표주자. 매콤한 피쉬카레가 들  
어있어요! (한화 250원)



## 슈가빵

두꺼운 설탕이 빵 겉면에 가득. 달콤함의 끝을 보여준다!!  
(한화 250~300원)

## 소시지롤

담백하게 빵과 소시지로 승부한다!

(한화 350원)



## 에그롤

삶은 달걀, 양파, 고추가 플레인번과 만나면 영양 만점 식사대용빵  
이 됩니다. 오늘도 아쇼카의 선택은 에그롤!

(한화 350원)



## 옥수수수번

옥수수빵의 진수를 보여준다.

우유와 함께라면 한 개만 먹어도 속이 든든!



## 치킨튀김롤

맛있는 치킨 너겟이 한가운데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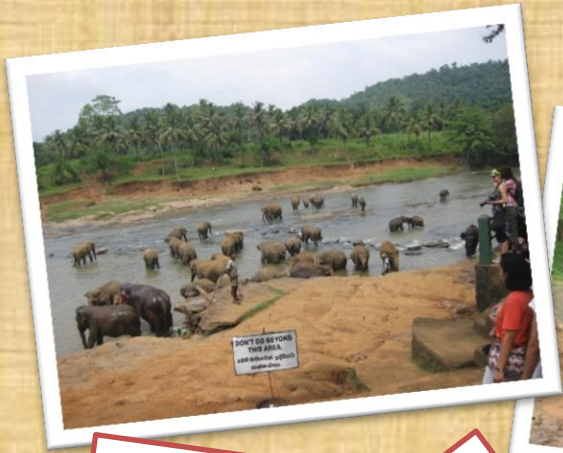
## 크림번

설탕이 두껍게 녹아있는 크림과 플레인번을 한번에 먹을 수 있다!

→ 한 달 먹을 설탕을 다 먹은 기분이에요. 그래도 또 먹고 싶다 >\_<



# 역사를 걷는 시간



첫째날 Pinnawela: 코끼리 보호소  
정글에서 다친 코끼리들을 데려와 돌본 후 go back to jungle!

**Aruna:** ㅋㅋ 나는 경극이가 저렇게 귀여운 줄 몰랐어  
 ⇨ 초딩 ㅋㅋ  
 ⇨ 초딩 2 ㅋㅋ  
 ⇨ 초딩 3 ㅋㅋ ♡

**Sayuri:** 코끼리가 강에서 이렇게 샤워를 하다니.... 난생 처음 보는 광경!

**Rashmi:** 그저 놀라울 뿐!

Peradeniya Botanical Garden: 스리랑카에서 제일 크고 아름다운 생태공원



제가 작을게 아니라 왜 나무가 투지 큰 거예요 ㅠㅠ



**Aruna:** 우리의 chairman이 저렇게 환하게 웃는 것은 처음 봤음!  
 ⇨ 모라투와 YMCA의 삼총사!!

**Sayuri:** 걸어도 걸어도 지치지 않는 신기한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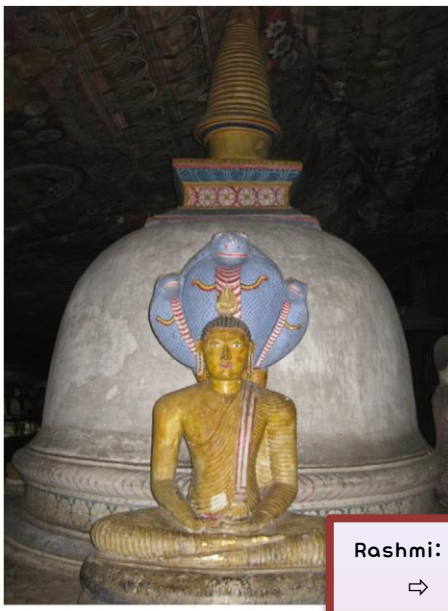
**Rashmi:** 연인이 사방 곳곳!



Tea Factory: 차 공장

앗~! 뜨거~!





동째날 Dambulla: 5개의 절과 유네스코 유산, 누워있는 부처상이 있는 곳

Rashmi: 부처님께 바치는 스리랑카 꽃~

- ⇒ 소라야 꽃은 먹지 말자
- ⇒ 원숭이가 먹어

Chamara: 눈 뜨고 자면 잠이 잘 오나요? ☺

Aruna: 스투파 안에 있는 액세서리가 정말 궁금함. 그게 세계 유네스코 유산이라며?



Sigiriya: 몇 천년 전 번성했던 고대 도시. 많은 프레스코가 있는 곳



Sayuri: 번성했던 그 시절 그 때가 궁금하다. 정말로 아름답고 놀라운 곳

- ⇒ 왕의 여자만 500명이라며?

Aruna: 살면서 꼭 봐야 할 경관 중 하나

- ⇒ 말로 표현할 수 없음. 직접 봐야 함

Rashmi: 우리가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더니!

저 높은 곳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됐을까?

Deduni: 올라가느라 체력적으로 정말 피곤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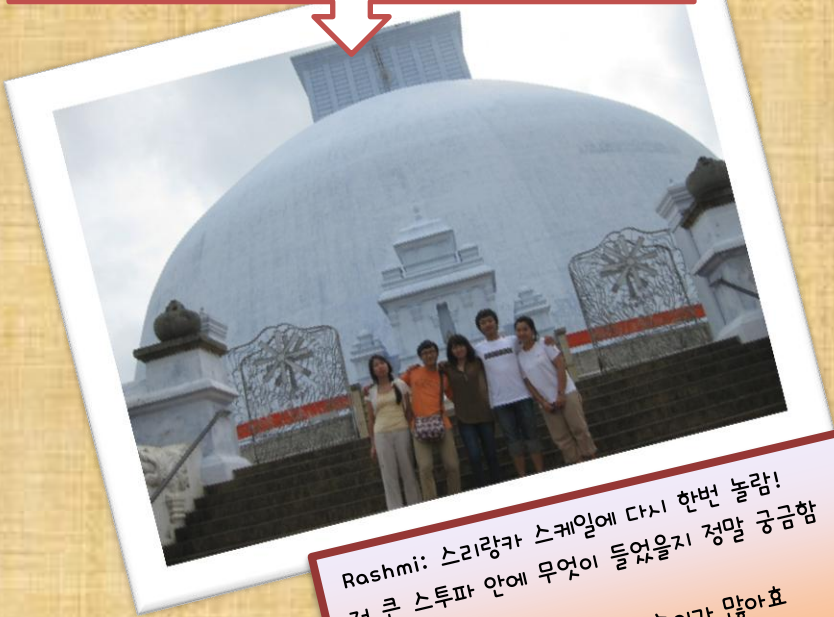
Chamara: 지금 있는 어떤 도시보다도 살기 편했을 것 같은 곳

- ⇒ 왕만 편했을 것 같은데
- ⇒ 내가 왕임 ㅋ 능력자임 ㅋ
- ⇒ 아 경극이의 여장은 시기리야에서도 계속





Anuradhapura: 2000년된 보리수 나무가 있는 고대 도시. 많은 거대한 절들이 있는 곳



Rashmi: 스리랑카 스케일에 다시 한번 놀람!  
저 큰 스투파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정말 궁금함  
Aruna: 이 곳은 길거리에 원숭이가 많아요



Aruna: 나는 수영을 못해서 못들어 감.. 훌쩍  
⇒ 수영 다시 배워야겠음  
Chamara: 아쇼카의 배는 충격적. 애는 언제 낳는가?  
⇒ 난 예상 했음. 물 먹는 하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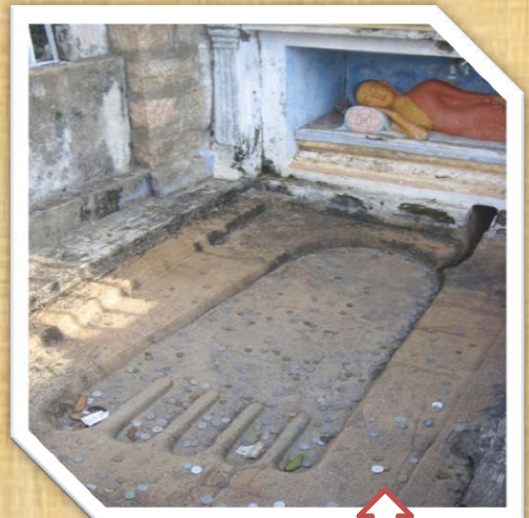
Kandy temple: 부처님의 이가 있는 곳

Aruna: 스리랑카에는 부처의 이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사리가 있  
다는데, 한 번 가보고 싶다  
Chamara: 세계 각지에 퍼져있는 싯다르타의 흔적  
Rashmi: 우리 팀이 무사하길 기도함

셋째날 Polonnaruwa: 스리랑카의 거대한 고대 도시



Aruna: 우리나라의 경주라고 생각하면 됨  
Rashmi: 스리랑카 고대 도시 최고임  
⇒ 선조들의 지혜에 감탄을 금치 못함  
Sayuri: 역사가 숨쉬는 곳. 지나간 역사 앞에 내 자신이 작아진 느낌  
⇒ 동감



Isurumuniya: 부처의 발바닥이 있는 곳

Dedunu: 아 부처 발바닥이다!  
⇒ 부처님 평발이셨네  
Sayuri: 발바닥이 정말로 저렇게 컸을까?



스리랑카팀 5기  
개인 에세이

우리들의 이야기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 4월은...

By. Rashmi(소라)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은 달 이였습니다.

다른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라운아띠"들도 그렇겠지만, 이제 각 프로그램마다 필요한 설명이 끝나고 직접 활동에 투입되는 시간인 동시에 벌써 라운아띠 활동이 중간을 향해 가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과 라운아띠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프로젝트들이 겹치면서 체력도 힘도 바닥나는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 고민한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라운아띠에 대해서 입니다. 두 가지의 생각은 연결선 상에 있는데, 라운아띠가 이곳 스리랑카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역할에 따라 프로젝트의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라운아띠의 역할을 무엇일까요? 한국YMCA와 모라투와YMCA가 직접적으로 만나기에는 시간과 공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신 이곳에 와서 두 단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일까요? 아님 현지 YMCA 프로젝트에 톡톡 튀는 대학생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곳에 왔을까요? 또 이곳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을 이끌 대학생들의 리더십을 키우기 위하여? 현지에 필요한 일꾼으로 왔을까요? 모든 것을 이루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여기에 올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왔는지? 지금 나의 행동은 우리에게 그리고 스리랑카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 오기 전 마지막 훈련에서 라운아띠 5기들과 장난삼아 "라운아치는 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라운아치"는 라운아띠와 양아치 단어를 섞어서 만든 말인데요. 한마디로 라운아띠가 다른 나라에 많은 민폐를 끼치면 라운아치가 되는 것이지요. TT 저는 지금까지 라운아치인 적은 없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가끔 혼란스러운 것은 한국YMCA와 모라투와YMCA가 우리 라운아띠에게 바라는 점과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때 입니다. 그리고 한국YMCA는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하기를 원하지만, 현지 YMCA는 우리 기수만의 독특한 프로젝트를 원할 때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또 라운아띠가 되고 훈련기간에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보다 현지 사람들과 함께 진행하고 그들이 그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 중 하나라고 배워왔지만, 가끔 현지에서는 우리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의 책임으로 넘어왔을 때 혼란스럽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은 과연 어떤 것인지? 내가 그 행동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보다 우리가 해야 하는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지 고민이 무척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현지 YMCA와 문화적인 차이,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게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문화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이유, 언어, 환경 등 정말 많은 것들이 복합되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저의 모습도 많이 보았습니다.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라온아띠의 정말 중요한 역할은 FRIENDSHIP 만들기 입니다. 물론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정된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만, 가끔 문화적인 이유로 오해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또 현지에서는 저희의 안전을 최우선 하기 때문에 가끔 현지 사람들과 만남을 제한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친구가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 등, 대립되는 상황에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더욱 어려운 점은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는 것입니다. 팀으로 이곳 스리랑카에 왔기에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이러한 고민들은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스리랑카 팀원들도 한번쯤은 했을 것이고 라온아띠 모든 멤버들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라온아띠 평가연구 책에 발간사 부분을 보면, 이학영 사무총장님께서

5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햇빛 그을린 얼굴들의 청년들은 그 시간을 이렇게 고백 합니다. 그 고백은 치열하게 고민했고, 온 마음으로 공감하며, 순수하게 행복했던 경험을 딛고 선 청춘들의 것이기에 더욱 값지고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저는 지금 스리랑카에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ㅎㅎㅎ  
제 역할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인지? 스리랑카에서 치열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 손으로 빨래를 하면서 드는 생각

BY 데두누(김진경)

여기서 지내는 동안 후두염이 심해져서 음식을 씹어서 삼킬 때마다 음식물이 목구멍을 지나가는 단면이 하나하나 느껴질 때가 있었다. 결국 물과 과일주스만 마시면서 2박 3일을 버티다가 결국 한국에 계신 할머니에게 SOS를 쳤다.

국제전화로 걸려온 철없는 손녀의 닭죽타령에 할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마늘, 양파, 그리고 구할 수만 있다면 대추, 황기나 수삼도 넣고 푹푹 끓이다가 닭을 넣으면 된다고 하셨다. 긴 한숨과 함께 마무리는 '귀하게 키워냈더니 거기 가서 왜 고생하냐'는 말이었다.

마트에서 대추랑 닭 가슴살을 사와 보니, 대추는 설탕에 절인 야자대추이고 닭은 뼈가 살아있는 통닭인데, 숨어있던 갈비뼈가 날카로워 순간 손을 베이고 말았다. 몸은 아프고 머리는 어질어질한 이 순간에 닭을 먹겠다는 '위장'이 너무 밍그고 짜증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고 만다. 그 동안에는 엄마가 해 주셨던 밥을 먹으며, 빨래는 세탁기가 해 주었던 편안한 삶을 살아 왔는데 왜 나는 스리랑카에 와서, 닭고기 앞에서 이렇게 바보같이 울고 있는지, 가슴이 울컥울컥 요동치기 시작했던 순간이었다.

결국 어찌어찌 해서 닭은 삶아졌고, 비록 대추 때문에 들쩍지근하긴 하지만 대충 백숙 맛이 났다. 국물을 위장에 들이부으면서 할머니 그리고 엄마가 떠올랐다.

이쪽에 와서 예상치 못했던 일 중의 하나는 일상생활 중간중간에 가족들이, 과거의 여자의 역할이, 가족에서의 여성의 위치 등에까지 생각이 미친다는 것이다.

그 옛날 나무로 불을 떼서 밥을 했던 할머니, 5살 때부터 베틀에 앉아 베를 찢다던 할머니, 소중하게 키우던 닭을 잡아줄 사람이 없어 직접 눈물을 흘리며 잡아 죽였다던 소녀시절의 할머니는, 나처럼 다른 세상에 나가볼 기회가 없었던 우리 할머니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20여년 전 땀띠에 찬 내 영덩이 때문에 일회용 기저귀 대신 하루에 광목천 똥기저귀 100개씩 빨아야 했다던 엄마는, 집안에 수도꼭지가 없어 아래층 마당에서 5층 빌라 꼭대기까지 물을 길어와서 빨래 설거지 다 했다던 엄마는, 하루 종일 계단을 아래위로 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하곤 했을까? 그리고 그 옛날 손으로 일일이 바느질해서 옷을 만들고, 쌀을 빻아 떡을 찌고, 아이를 키웠던 그 여자들은....??

손으로 일일이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이 스리랑카에 오지 않았다면, 이렇게 시공간을 뛰어넘어 할머니나 엄마가 겪어야 했던 생활을 공유하지는 못했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순간들이 있기에 엄마나 할머니가 인생을 살면서 했던 선택들을 조금씩 조금씩 이해하게 된다. '바보같이 왜 시키는 대로 그런 거 다 해주고 그랬어?'라고 되묻는 대신, 그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엄마, 할머니를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과거 속의 여자들에 대해서 공감하게 된다.

그리고 여자와 남자의 역할 차이에 대해서, 항상 몇몇 부분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요즘은 그 시절 그 생각들이 일리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예를 들어 가끔 핸드폰만한 바퀴벌레가 저공 비행해서 우리 집안으로 들어오면 남자애들이 알아서(!) 잡아주곤 한다. 무거운 콘크리트 링을 나를 때는, 우리 팀의 차마르(경극)와 아루나(보성)만 나가서 일을 했었다. 벽에 포스터를 붙여야 할 때도, 늦은 밤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가야 할 때도 남자아이들밖에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는 차마르는 지금



공공대고 아루나는 살이 5kg나 빠져버렸다. 반대로 우리 여자아이들은 다른 섬세한 작업이 필요할 때 나서서 일을 하곤 한다. 우직한 힘과 섬세함의 차이로서 남자와 여자를 가르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 면이 요구되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스리랑카 사회 속에서 지내고 있다.

이 곳에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난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기계의 편리함과 소비생활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에서 난 이곳에서 느꼈던 것들을 잊게 되지는 않을까? 아니면 편리한 생활에 괴리감을 느끼며 스리랑카의 뜨거운 햇살을 그리워하게 될까?

항상 머릿속에 많은 질문이 떠오르고, 뚜렷한 대답 없이 가라앉곤 한다. 아직도 나는 이 곳에서 성장기와 적응기를 거치고 있는 것 같다. 5개월 중 2개월이 지났는데 이렇게 지내다가는 5개월 내내 적응만 하다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 같아 두렵고 망설여진다.

부디 이 적응기간이 의미 있게 끝나기를, 오늘도 간절히 빌며 하루가 저물어간다.

## 사유리의 4월, 그녀의 이야기

4월엔 참 느낀 것이 많다. 3월에는 이것 저것 정신 없이 돌아가는 것이 많았는데, 4월엔 모든 것이 궤도에 오르는가 싶더니 마음 속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정리하고 다스려야 할 것이 많아졌다.

나는 어쩌다가 스리랑카라는 곳에 오게 되었을까. 하느님은 왜 나를 이 곳으로 보내셨을까. 여기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등등의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내 마음 속을 떠나지 않았다. 물론 라온아띠 지원서를 작성하고, 합격하고 국내 훈련을 받고 스리랑카에 오기 직전까지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배웠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서 그냥 "잘 살다가 오는 것"이라는 것. 하지만 그 잘 살다 온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란 말인가?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끊임 없는 생각 끝에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다.

말 그대로, 내가 이 곳에 온 것은 내 마음을 나누며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잘 살려고 온 것이다. 잘 살려면 우선 내가 행복해야 되니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하고 즐거울 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도 행복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밀린 잠을 잘 때도,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비 오는 날 집에서 여유를 즐길 때도 너무 행복하다. 생각보다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로 많았다.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지만 내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 때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내가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때 난 정말로 행복하다. 행복이라는 것은 언제나 나누고 함께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기에, 나는 그 행복을 나누고 싶었다. 이러한 생각에 다다르니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그래서 과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이다. 답은 수도 없이 많지만, 이 곳 스리랑카에서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은 이렇다. 나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고, 나의 사랑을 나누고, 내 열정을 쏟아 모든 일을 열심히 하는 내가 되기.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실천하기.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을 잘 알고 있다. 잘 산다는 것은 좋은 일만 일어난다는 의미는 아니니까. 힘이 들 때도 있을 것이고 회의감이 들 때도 있을 것이고 프로젝트나 팀 활동 면에서도 여러 어려움에 다다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일들 속에서 잘 살다 오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한다.

어쩌면 나는 선택 받았다. 내가 스리랑카에 온 건 나의 특권이자 짐이다.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부담감과 책임감이 뒤 따른다. 그렇지만, 아무리 부담이 가고 책임감이 따라도 좋다. 난 지금 이 곳에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이 기회를 내가 아닌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해 쓰고 싶다. 오직 그랬을 때 만이 내 마음이 훨씬 더 성장해 있을 것 같다.

사실 지금도 나의 짧은 글 솜씨 때문에 내 진심이 왜곡 되거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까 두렵다. 그렇지만 생각은 나누는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몇 글자 적어봤다. 앞으로 여기 스리랑카에 올 아름다운 그 사람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

- 사유리 (이지윤)
- Jlee58@wustl.edu



## 팀 조율과 여행

안녕하세요! 랑카팀의 ARUNA입니다! 3월 보고서에 있는 자기소개 파트를 보셨다면 제가 누군지 아실 거예요^^

스리랑카에 온지 벌써 두 달이 지났네요ㅠㅠ 어느덧 5월입니다. 한국은 따뜻한 기운이 물씬 풍기는 화사한 봄이겠군요^^ 한국에 계신 YMCA 지인님들, 다른 나라에서 각자 즐겁게 생활하고 있을 라온 아띠 동기님들 다 잘 지내고 계시지요?ㅎㅎ

저는 이번 팀 개인 에세이에 4월 한달 동안 느낀 라온아띠 생활과 프로그램에 관하여 개인적인 생각을 썼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저희 팀의 다른 멤버와는 보는 관점 이라던지 느낀 점이 다를 수 있으니 그냥 재미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팀 화합에 관한 것 인데요. 이건 다른 팀들은 어떤지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국내훈련 중에는 팀 의견도 대부분 일치하고 어떤 활동을 하건 화합이 잘 됐기 때문에 스리랑카에 가서도 술술 잘 풀려 나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만 ~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더군요.

저희 팀 역시 의견이 갈려서 몇 일간 회의를 하거나 결국 갈등으로 번져서 서로가 마음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각자가 팀을 우선으로 생각하여 기꺼이 자신들의 의견을 굽히고는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는 다수를 생각해야 하는 공동체 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의견 조율의 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Win-Win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것 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A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나 의견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언제까지나 억지로 팀에 자신의 의견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 되면 그 A는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생활력을 상실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 의견 종합을 위해서는 소수자의 의견이 굽혀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최선이지만, 그 최선이 비단 한 사람의 의견만 굽히게 하는 것이라면 저는 때때로 이유를 떠나서 A라는 사람의 의견대로 해보려고 밀어붙여 볼 것 같아요. 억지스럽지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 팀이 남은 3개월을 무탈 없이 잘 지내다 갈 수 있는 좋은 길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팀 생활에서, 물론 제가 좋아서 하고 싶어하는 일도 있겠지만 제게 우선순위는 팀원 전체가 하나의 일을 즐겁게 화합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 제가 좋아하는 '무엇' 보다도 팀의 의견이 일치해서 즐겁게 하는 그 '무엇'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ㅎ

그리고.. 여담이지만 정말로 그 의견이 나의 생각과 일치 하기 때문에 다른 말 할 것 없이 '좋다' 라고 말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진정 너의 의견을 이야기 해봐라', '다른 의견을 내놓아 봐라'하면서 '금지어'로 만들거나 '의심의 눈초리'를 던지게 하는 라온아띠 생활이 '미울 때'가 있습니다.ㅎㅎ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 사는 곳에 이런 걱정이나 갈등이 없으면 재미도 없고 발전도 없을 것이며, 실제로 이 같은 생활을 하면서 좋은 경험이라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재미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팀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 팀이 갈등이나 의견 조율을 꽤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밀노트를 활용하여 서로를 칭찬하고 조언을 주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며, 회의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그것이지요.

정리하자면 다른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나'보다 '팀'을 생각하는 마음과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며 팀이 함께 가는 '화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프로그램에 관한 것 인데요. 저희 스리랑카 팀은 주로 페인트 칠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콘크리트 링과 리사이클 빈을 포함하여 벽화 그리기까지 페인트 작업을 많이 했고 앞으로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스리랑카에 오게 될 6기 단원님들.. 페인트 작업용 옷을 따로 마련해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ㅋㅋ 아! 이 곳에 괜찮은 옷을 100루피[한화 1,000원 정도]에 파는 샵[100루피 샵]이 있으니 거기서 구입해도 괜찮겠네요.)

저희 기수가 유난히 페인트 작업을 많이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 돌아갈 때 쯤엔 아마 페인트 전문가가 돼있지 않을까 싶네요^^ㅎ

4월에는 페인트 같은 저희들의 큰 프로젝트 말고도 스페셜 활동이 많았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봉사활동가 500여명이 크루즈 선을 타고 여러 나라를 돌아 다니며 봉사활동을 하는 'LOGOS HOPE' 멤버 7명과 10일간 같이 활동을 해봤고요. 또 MORATUWA area Blood Donation Campaign을 한 후 4월 마지막 주에는 3일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활동을 더 했는데 제게 인상 깊었던 3가지 활동만 적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게는 '여행'이 제일 인상 깊네요. 얼마나 인상이 깊었으면 3일간 1,800여장의 사진을 찍었더군요ㅋㅋ 하루에 약 600번의 셔터를 누른 셈입니다. 아, 삭제한 것까지 하면 더 되겠네요ㅎㅎ

역시 사진만큼 나중에 남는 것은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여행을 통해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은 저희 팀이 식중이도 저리 가라 할 만큼 많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행 경비 중 50%가 다섯 명 식비로 나갔더라고요ㅋㅋ 먹고 나서 정확히 2시간이 지나면 포만감 게이지가 Zero가 된다는..ㅎㅎ

현재 스리랑카는 '우기'라서 2주 동안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전에 걱정한 것이 비 때문에 여행 일정이 지장 받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는데 다행히 여행 중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별 탈 없이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스리랑카의 불교 역사는 실제로 오래됐으며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로 대단하구나'라는 것 입니다. 사실 저는 스리랑카의 국교가 불교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사는 MORATUWA 지역이 다른 지역 보다 기독교와 천주교 신자가 훨씬 많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곳이 정말 불교국가 맞나 하는 의문까지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행을 통해 그런 의문을 깨끗이 지울 수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느낀 점은 스리랑카는 자연을, 제가 본 우리나라의 몇몇 관광지처럼 사람에게 더 편리하고 멋지게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변화를 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연을 보존 하려는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Botanical Garden과 코끼리 농원에서 그런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 두 곳을 여행 할 때는 탁 트인 전경과 함께 밀려오는 산뜻한 기분이 제 자신을 즐겁게 해주더군요!^^

자연 경관을 200% 보고 느끼기 위해서는 조금 불편하고 위험하더라도 사람이 손을 대지 않은 그대로의 자연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와~! 4월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 전부 쓰지 못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ㅠㅠ 저는 많은 일들을 알게 쓰기 보다는 인상 깊었던 한두 가지의 일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는 것(솔직히 이 에세이도 깊다고 할 수는 없지만..)을 좋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허접한 개인 에세이였지만 재미있게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ㅎ 그럼 5월 한 달도 좋은 일들만 가득 하시길 바라며.. 다음 월말 보고서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Chamara의 4월: Understanding

3월 보고서를 쓰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우리의 4월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에 빠르게 느끼는 것은, 시간이 점점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스리랑카에 오고 나서 초반에는 약간 지루하고, 가끔은 '내가 이렇게 지루하게 시간을 보내려고 여기 온 건가?'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틈이 없다. 특히 이번 한 달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이번 4월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다.

특히 내 개인적으로는, 이번 한 달동안 나는 정말 많은 것을 '이해'했던 것 같다. 딱히 무엇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많은 것들을 접하고, 보고, 듣고, 느꼈고, 그것들을 '나의 생각'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듯 하다. 사실 너무 많은 것들을 느껴서 하루하루 정리하는 것도 벅찰 지경이다. 시간이 점점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그 때문일까.

4월 초반에 우리와 2주 가까이 생활했던 Logos Hope 사람들과 있을 때도, 나는 많은 '이해'를 접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정보는 그들이 남겨준 그들의 이름과 e-mail 주소, 그리고 그들이 알려준 Logos Hope에 대한 짚막한 지식이 전부이다.

하지만, 나를 포함한 우리 라온아띠들은 2주 가까이 함께 그들과 살면서 서로 많은 것을 이해한 듯 하다. 생각해 보면, 5명이 살던 집에 7명이 더 들어왔으니 생활공간이 좁아지는 건 당연하다. 또한, 그 사람들도 쾌적한 개인침대와 냉방이 완벽히 구비된 숙소를 벗어나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과 부대껴 사는 처지가 되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공동규칙을 세우고, 무엇보다 같이 활동하고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서로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 것 같다. 나와 다른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닌, "저런 방법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또 하나의 이해는, 내가 우리 팀원들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내가 정말 놀랐던 것은, 우리 팀원들을 정말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특히 이번 달의 가장 고되고 힘들었던 작업 중 하나인 콘크리트 링 작업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정말 더웠고, 정말 지치고, 정말 힘이 드는 작업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정도가 사람마다 이렇게 다른 것인 것인지를 나는 몰랐다. 우리 팀원들 중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겉으로는 "괜찮아? 좀 쉬는 게 어때?"라고 하지만, 솔직히 속마음으로는 '다 같이 힘든 건데 다른 팀원을 생각해서라도 조금 참고 견디면 더 좋을 텐데, 그 생각을 못하는 건가?' 라고 생각했었다. 물론, 나는 그 때 조금 더 참고 일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일 이후에 현지 코디네이터, 또 우리 팀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수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고, 거듭된 회의를 거치면서 나는 내 생각이 틀렸음을 알게 되었다. 힘들다고 했던 단원들은 다른 팀원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게 힘든 티를 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다른 팀원들을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버티기 힘들 때까지 작업을 계속한 것이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버리고 살짝 주저앉은 것이었다. 그것 뿐이었다.

하지만, 그에 비해 나는 개인마다 다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기준에 맞추어 다른 팀원을 판단한 것이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 건 그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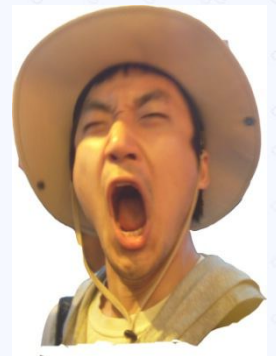
2박 3일간의 국내여행, 그 곳에서도 나는 많은 것을 이해했다. 건물 하나, 벽을 구성하고 있는 있는 돌 하나도 2000년이 넘는 유서가 깊은 곳에서, 나는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과 짝막한 대화, 대화가 안 되더라도 눈을 마주치며 그들을 이해하려 애썼다. 우리를 가이드해준 한 청년은 자신의 일이 너무 좋아서, 자신의 일을 더 열심히, 그리고 보람차게 하기 위해서 외국어를 넓고 깊게 공부하고 있다고 했다. 자신의 일을 즐길 줄 알고 그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그를 보며, 나는 또다시 그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또 이해했다.

사람들만을 이해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불교유적이 중심이 된 나라지만, 그 속에서 부처의 가르침과 생활방식이 우리와는 다른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와 다른 문화를 가진, 또 어떤 면에서는 다른 문화를 가진 그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실들, 느낌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4월 중순에 있었던 스리랑카의 설날, Sinhala Avurudu Festival에도, 나는 다양한 연령과 성별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놀이를 하며, 같은 음식을 먹으며, 같은 언어로 이야기 하며, 그들과 비슷해져 갔다. 서로 눈치를 보며, 상대방의 심리를 파악하려 애쓰며, 자신을 속이려 드는 것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생각했던 한국에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냥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되어간다. 특별한 외국인이 아닌, 그들의 무리 중 한 명이 되어간다.

4월의 스리랑카, 그 속에서 나는 수많은 '이해'를 하며, 나 자신을 키워 나가고 있다.

스리랑카 모라투와에서  
라온아피 5기 전경극





To Be Continued

사유리 데두누 랫슈미 차마라 아루나

10001001001

